

강릉방언자료에서 얻는 想念 몇몇

이익섭

1.

강릉방언에는, 우리가 방언에서 古語의 흔적을 찾을 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던 구석진 곳
곳에서 의외로 그 흔적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만큼 자잘하다면 자잘한 것들인데 그럼으로
써 오히려 그것들은 지금껏 우리가 제기해 오지 않았던 문제들을 일깨워 주는 면이 있다. 거
의가 어휘와 관련되는 것들인데, 오늘 국어사를 전공하는 여러분의 많은 叱正을 기대하며 그
중 몇 가지를 함께 들추어보고자 한다.

2.

먼저 ‘까치놀’부터 보자. 이 단어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다음과 같이
올라 있다.

- (1) 까치-놀 [까:--] ㉠ ① 석양을 받은 먼바다의 수평선에서 번득거리는 노을. ㉡ 먼바다의 까
치놀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그늘진 얼굴 속에서 눈망울이 빛나고 있었
다. <<한승원, 해일>> ② 울긋불긋한 노을.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풀이다. 국어사전이 이렇게 엉뚱할 수도 있다는 대
표적인 보기가 아닐까 한다. ‘까치놀’의 ‘놀’을 엉뚱하게 ‘노을’로 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예
문도 잘못 선택되었다. 문장부터 서둘러 사전의 예문으로 쓰기 적절치 않지만, 세 권으로 된
이 소설의 제2권 권말에 붙은 <이 소설에 쓰인 어촌 속담과 어려운 말 풀이>에 ‘까치놀’이
“석양에 멀리 바라다보이는 바다의 수평선에서 희번덕거리는 물결”로 되어 있다. ‘파도’의 뜻
으로 쓴 글을 ‘노을’의 예문으로 쓴 것이다.

이 ‘까치놀’ 항에는 어원 정보가 없다. 위와 같은 엉뚱한 풀이는 이미 거기에서부터 시작
된 것으로 보인다.

- (2)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매게 쫓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가온대 一千石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잃고 농총도 굵고 돛대도 꺾어지고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자옥한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四面이 거
머어득 저물었고 天地 寂寞 가치노을 떴는데 水賊 만난 都沙工 안과
엇그제 님 여훤 내 안이야 어디다가 가을하리오.

이것은 작자 미상의 古時調인데 여기에 ‘가치노을’이 나온다. ‘가치노을’은 판본에 따라 ‘가
티놀’로도 나온다. 즉 『靑丘永言』에는 앞에서처럼 ‘가치노을’인데 『歌曲源流』에서는 ‘가티놀’

로 되어 있다. 형태적으로 보면 ‘가티놀’이 더 古形으로 보이지만 이미 용비어천가에 ‘가치’가 보이는 만큼 ‘가티’는 擬古形이기가 쉽다. 어쨌든 현대어로는 ‘까치노을/까치놀’이 우리 문헌에 출현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이 시조 이외엔 없고 이 시조의 문맥으로는 그 뜻이 잘 잡히지 않아 학계에서 한동안 이 풀이를 두고 異見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가람 李秉岐 선생이 ‘놀’을 ‘물결’로 풀면서 가닥이 잡혀가고, 鄭炳昱 선생의 『時調文學事典』(1966)에는 ‘가치노을’이 ‘사나운 파도’로 풀이된다. 그리고 『物譜』에서 ‘가티노을’을 ‘白頭波’라 한 것이 劉昌惇의 『李朝語辭典』(1964) 및 南廣祐의 『古語辭典』(1997)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놀/노을’이 하늘의 노을이 아니라 바다의 파도로 보는 인식은 일찍부터 꽤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겠다.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증보판 1982) 풀이도 “석양에 멀리 바라다보이는 바다의 수평선에서 희번덕거리는 놀”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여기는 ‘놀’이라고 하였지 ‘노을’이라 하지는 않았다(1961 초판에서는 ‘상태’였다). ‘놀’은 ‘노을’의 준말일 수도 있으나 당장 이 사전에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벧사람의 말)”이라는 풀이도 있다. 그 ‘놀’을 ‘과감히’ ‘노을’로 고친 것이다. 한 사전이 이렇게 길을 잘못 잡아 놓으면 일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디선가 그걸 베끼면서 禍不單行이랄까 이리저리 번진다. 당장 『고려대 한국어사전』(2011)에 “바다의 수평선에서 석양을 받아 번덕거리는 빛”이 나오고, “갯벌 너머에서 놀던 까치놀도 어느덧 사라졌다”는 야릇한 예문까지 등장한다.

비록 이런 엉뚱한 해석이 있지만 ‘까치놀’이 파도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까치놀’은 아직까지 다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 ‘까치놀’의 ‘까치’가 무엇을 위해, 파도의 어떤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거기에 들어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白頭波’라 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으니 ‘白頭波’는 어느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국어사전에는 물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간행한 『漢韓大辭典』(2008)에도 없다. 중국 쪽에 부탁하여 좀 알아보아 달라고 하였더니, 거기에서도 현대어에서는 안 쓰이고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다고 한다. 다만 고전의 詩에서나 더러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몇 편의 시를 보내 주었는데 그중 당나라 鄭谷의 「淮上漁者」라는 시는 이렇다. 白頭波上白頭翁, 家逐船移浦浦風。一尺鱸魚新釣得, 兒孫吹火荻花中。

이렇게 하고서야 겨우 윤곽이 잡히는 ‘白頭波’를 『物譜』라면 모를까 그 후의 고어사전들에서까지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白頭波’라고만 되뇌고 있다. ‘까치놀’은 계속 우리에게 막연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때 ‘까치놀’의 ‘까치’를 찾아 열심히 답사를 다닌 적이 있다. 학부 3학년 때, 그러니까 1958년, 서해 白翎島를 위시해 大靑島 小靑島 延坪島 일대로 학술답사를 갔을 때 어학반(방언반)으로 따라가는 나에게 정병욱 선생이 ‘까치놀’이 혹시 있는지 조사해 보라고 해 시작된 일인데, 나중 동해안쪽은 어떤가 하여, 강릉, 삼척, 울진(당시는 울진이 강원도였다) 일대에서도 조사를 한 것이다. 서해안의 것은 『文理大學報』(6권 2호, 1958)에 「語學班 調查報告 - 延坪島 中心의 西海 島嶼 方言調查」라는 이름으로 실렸는데, 그중 ‘간치늪(간치놀)’ 얘기가 있다. 파도를 ‘몽글늪’와 ‘간치늪’로 나누면서, 전자는 완만하게 둥글둥글 이는 파도를 가리키고, ‘간치늪’는 물결이 거세어 높아졌다 꺾이면서 하얗게 거품이 이는 파도를 가리킨다는 내용이다.

강릉에서는 ‘까차놀’이었다. ‘까차’는 ‘까치’에 속격조사가 결합한 형태로 ‘까차구영’ ‘까차밥’ ‘까차보름날’ 같은 복합어들이 더 있다. 파도가 어떤 날은 보통 때와 달리 저 안쪽에서부터 희끗희끗 그리 높지는 않으나 좀 급한 울동을 일으키며 치는 날이 있다. 심할 때는 온 바다가 그 희끗거리는 물결로 짝 차며 장관을 연출한다. 대개 바람이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 때 생기는데 어쨌든 그 드넓게 생동감 넘치게 펼쳐지는 모습은 따로 이름을 받을 만했겠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삼척과 울진에서도 각각 ‘까치바당’, ‘까치바리’로 이 종류의 파도를 가리켰고, 어디서나 그 흰빛을 까치의 색깔과 연결시켜 설명해 주었다.

古時調의 ‘가치노을/가티놀’이 이들 중 어느것을 가리키는 것일지는 헤아리기 어렵다. 적어도 흰 빛깔의 파도인데, 나는 역시 팔이 안으로 굽어, 우리가 통상 파도라면 으레 흰 파도를 떠올리는데 단순히 희다고 해 따로 ‘까치놀’이라 하였겠느냐, 강릉의 ‘까차놀’쯤 되어야 ‘까치놀’이지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앞으로 ‘까치놀’의 정의는 그쪽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누가 알겠는가 이 단어가 살아남기나 할지.

3.

다음으로 ‘죽살다’로 넘어가 보자. ‘죽살다’는 아예 古語로 올라 있다. 그 풀이며, 예문이 古語辭典들의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

(3) 죽-살다 ㉮ <옛> 죽고 살다. ㉮그딤 이제 죽살 짜해 가느니<두시-초 8:67>.

여기서 ‘죽고 살다’라는 풀이를 예문에 적용하면 ‘죽고 살 땅에’가 된다. 그런데 ‘죽고 살 땅’은 어떤 땅일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땅은 다 죽고 살 땅이지 永生을 누릴 땅은 없지 않은가. 변명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사는 땅을 누가 ‘죽고 살 땅’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무슨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는 걸 암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 우리말에서 ‘검푸르다’ ‘날뛰다’처럼 어간이 직접 결합된 복합어에서 두 어간이 대등한 자격을 가지는 일은 드물다. ‘검고 푸르다’ ‘날고 뛰다’로 풀이될 수 없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풀이들은 “검은빛을 띠면서 푸르다” “날 듯이 꺾충꺾충 뛰다”식으로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죽살다’는 ‘죽고 살다’인가. 당장 예문의 상황이 ‘죽다’와 ‘살다’를 대등하게 병렬로 풀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그 예문에 이어지는 對句 “기픈 설우미 中腸애 迫切ᄃᆞᆫ애라”만 보아도 바로 드러난다. 그리고 ‘죽살 땅’의 원문 ‘死生地’만 보아도 ‘그딤’이 가는 곳이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 곳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죽고 살 땅’으로는 그 분위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드러난다.

국어사전에는 ‘죽살이’와 ‘죽살이치다’도 올라 있다. 이것들은 古語로서가 아니라 현대국어의 일원으로 올라 있는데 둘 중 후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4) 죽살이-치다 ㉮ 어떤 일에 모질게 힘을 쓰다. ㉮어머니는 우리를 공부시키시느라고 죽살이치셨다. /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죽살이치며 도망갔다.

‘죽살다’에서 파생한 단어임에도 이번에는 뜻풀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죽살이’도 “죽고 사는 것을 다투는 정도의 고생”이다. 적어도 이들에서도 ‘죽살다’를 것처럼 기계적으로 정의할 일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쓰게 하려고 그랬는지 강릉방언에서 용케 ‘죽살다’를 만났다. 거기에서도 잘 듣기 어려운 말인데 무엇이 도왔는지 우연히 나타나 주었다. 그 현장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표기가 낫설겠지만 내가 사전을 만들면서 만들어 쓰는 高調 기호며 鼻母音 기호들이랑 그대로 두었다.

(5) 키거 작:은 근 ‘죽사잡:구, 키거 좀 큰 늴은, ‘그땐 ‘모:거 좀 ‘늦이문 키거 ‘이랬다구. 야:이, 가물어 ‘가주구 물이 없:어 ‘가주 이래더거, 그래 ‘가주 그기 인재 ‘도장(徒長)한단 말이야, ‘도장. ‘도자○이라는 근 인재 도:를 ‘넘어서 ‘아주 쪽쪽 크다구. ‘그래니 그기 ‘죽산다구. 물이 많:은문, 물으 그뚝하게 ‘대: ‘노:문(놓으면) 좀 들:한데, 물이 좀 즉:게 해 ‘노:문, 물 ‘우에 이려 나오니, 바람 부:니, 이능엇기 ‘이래 ‘가주구, 이기 마커 ‘죽다시피 하더거 뿌레기서(뿌리에서) ‘요래 ‘가주 새루 ‘올려온다구.

강릉방언에는 ‘모살이’라는 말이 있다. 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으면 처음에는 기운을 못 쓰고 색깔도 노래지며 비실거리다가 1주일쯤 되면 뿌리가 정착하면서 깨끗하게 생기를 띠기 시작한다. 그것을 가리켜 ‘모살이’라 한다(표준어로는 ‘사름’으로 되어 있는데 별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앞의 예문은 모살이를 할 때의 이야기인데, 비가 잘 와 논에 물이 있어 모내기를 제때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해 모가 웃자란 것을 옮겨 심으면 ‘죽다시피 하다가 산다’, 곧 ‘죽산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죽살다’가 바로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었다.

4.

방언에서 古語가 보존되어 있는 걸 보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말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우리가 젊은이들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4학년 학생들은 저희들도 신입생들 말을 몰라요 하던 기억도 난다. 사투리도 빠르게 사라진다는 말도 자주 하고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죽살다’만 하여도 겨우 앞의 杜詩諺解에서 한번 나타났을 뿐 종적을 감추었던 것인데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아슬아슬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강릉방언에 古語의 흔적이 의외로 많다고 하였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았다.

4.1.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주격조사로 ‘가’가 아닌 ‘이’를 쓰고, 계사의 ‘이’를 취하는 습관만 해도 그렇다. “코이 크다마하다.” “‘이마이 잘스생겼네.” “이기 전부 저 집 터이래요.” “바다이 가쳐워서 바닷바람이 잘 ‘올러와요.” 등. 이 습관은 복합어에까지 뻗친다. “코이 납작 코이라 ‘이랬더니, 코두 인전 ‘살어났아.” “‘거개가 ‘공터이래서 전:깃세두 마○:이 안 나온대.” “서울에 가 ‘보문 불바다이잡소, 밤이래두. ‘아주 불바다이야.” 강릉 재야학자는 ‘뒤’의 강릉사투리를 ‘뒤으’라고 해 놓았는데 향격조사로 ‘으루’를 써서 ‘뒤’의 경우도 “그 뒤으룬 마커 산이래요.” “‘그땐 든: 불:러 가두 저: 뒤으루만(함경도쪽으로만) ‘갓잡소”라고 해 ‘으’를 조사의 일부인 줄 모르고 명사 말음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중세국어 때 받침 ‘ㅎ’을 가졌던 명사로 주격조사의 ‘이’나 향격조사 ‘으루’의 ‘으’나 그 ‘ㅎ’의 흔적을 지키는 습관일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나는 무엇이든 변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 激浪 속에서 이 전통들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 그

저 경이롭기만 하였다.

漢字語에서도 마찬가지다. “‘外家이 ‘뉘어야(높아야) 씨그운(쓴) 그 잘 먹는데. ‘나는 씨그운 기 안 좋:더라구. 내거 ‘外家이 ‘낮어 그렇나 이려 생각해.” “요새 ‘젊은이덜이 머 ‘그런 그 생각하우? ‘外家이구 ‘머이구, ‘그런 그 안 찾아요.” “그기 그 집 家山이야. ‘山所이 ‘거: 있잔가. 그 집 ‘山所이.” “큰서당이라구 ‘아주 소:문이 났대. ‘그땐 ‘먼 학교이 있는가?” 마치 『訓民正音』 ㅅ字解의 “孔子 | 魯스사름”의 전통을 이어오는 모습이 아닌가.

4.2. ‘ㅎ’과 관련해서는 경이로운 게 한 가지 더 있다. 아니 두 가지가 더 있다. 그 하나는 표준어에 없는 ‘ㅎ’을 가진 단어들이 강릉방언에 많다는 것이다. ‘보형다/보히하다/뽕형다/뽕히하다’ ‘부형다/부히하다/뽕형다/뽕히하다’ 등, 표준어 ‘보양다/보애지다/뽕양다/뽕애지다’ ‘부영다/부예지다/뽕영다/뽕예지다’ 등에 없는 ‘ㅎ’이다. 이들의 복합어 ‘뽕혀뽕형다’ ‘뽕히뽕히’에까지 ‘ㅎ’이 철저히 들어가 있다.

다 아다시피 ‘ㅎ’은 모음 사이에서는 쉽게 사라지는 취약성이 있는 음이다. 그런데 강릉방언에서는 비록 고령층에서이지만 ‘좋은’ ‘좋아’도 [조흔], [조하]로 ‘ㅎ’을 살려 발음한다. 심지어 ‘내년(來年)’을 ‘내현’이라고도 하고, 鄉名으로 ‘가매소’라 부르는 ‘부연(釜淵)’이란 지명을 ‘부현’이라 한다. 그런 배경이 있어서이긴 하겠으나 ‘보형다’류의 ‘ㅎ’은 마치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기라도 하겠다는 자세 같아 범상히 보이지 않는다.

표준어에는 이들 단어에 ‘ㅎ’이 없을 뿐 아니라 국어사전에 이들의 ‘ㅎ’을 보이는 어원 정보도 거의 없다. 겨우 ‘부영다’항에 “부희여하다<번노>”가 하나 있을 뿐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눈망울리 보혀며”(馬解상8)도 있어 ‘보양다’항의 어원 정보로 쓸 법한데 이것도 없다. 그러나 강릉방언의 ‘보형다’류는 고어의 모습을 이어온 것이라는 해석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그만큼 그 허약한 ‘ㅎ’을 굳게 간직해 온 귀한 자료가 아닐까 싶다.

4.3. ‘ㅎ’과 관련된 다른 하나는 ‘갈다’에 관한 것이다. 강릉방언에서는 ‘갈다/갈구나’를 [갈따]/[갈꾸나]라 하지 않고 [갈타]/[갈쿠나]라 한다(이것을 편의상 ‘갈타/갈구나’로 표기한다). 그러면서도 그게 표준어 발음과 다르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서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발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결같이 스스로의 발음이 표준어 발음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만큼 ‘갈타/갈구나’는 차이도 작고,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깐만 깊이 들여다보아도 그렇지 않다. ‘갈타/갈구나’를 ‘갈ㅎ다/갈ㅎ구나’로 해체해 놓고 보면 그 ‘ㅎ’은 ‘곧ㅎ다’의 ‘ㅎ’일 것이다. ‘곧ㅎ-’, 곧 ‘갈하-’가 ‘갈ㅎ-’으로 재구조화되어 그것이 강릉방언에서 유지되어 오는 것일 것이다. 차이조차 못 느끼고 있었던 곳에 겹겹의 地層으로 역사의 흔적이 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갈타’엔 이것으로 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더 있다. 하나는 ‘-아’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갈아서/갈았다’라 하지 않고 ‘갈에서/갈았다’라 하는 일이다. 이것은 어간을 ‘갈ㅎ-’으로 잡아서는 풀리지 않는다. 표준어에서도 비록 맞춤법은 ‘갈아서/갈았다’로 하고 표준발음도 그렇게 시키고는 있으나 윤석중의 동요를 보면 “뚝 갈구나 뚝 갈애”로 되어 있는데, ‘-애요’ ‘-았-’은 ‘하’변칙활용을 하는 형태이므로 ‘갈하-’라는 어간을 하나 더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표준어에서 ‘할 것 갈다’라고 할 때의 ‘것’을 빼고 말하는 현상이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이때는 ‘갈다’의 초두음 ‘ㄱ’이 으레 된소리로 나는데 그 앞 수식어의 말음이 ‘-르’ 때는 당연한 일이지만 ‘-ㄴ’일 때도 한결같다.

- (6) ㄱ. ‘면 늠어 비거 아:무래두 또 올ᄃᆞ 같타구 그래데.
 ㄴ. “‘죽으문 갖더 파묻음 갑갑해 우떠 사:나?” “갑갑한 그 알ᄃᆞ 같으문 ‘마:러 파묻소?”
 ㄷ. “아:무래두 ‘죽을ᄃᆞ 같채?” “그래두 ‘죽진 안할ᄃᆞ 같타라구.”

- (7) ㄱ. “그기 대나무나?” “대나무두 아닌ᄃᆞ 같애.”
 ㄴ. “할ᄃᆞ버ᄃᆞ이거 ‘그랠ᄃᆞ 적애 이거 읍:언가? 오목한 그 ‘보니.”
 “‘글쎄 ‘웃니거 읍:언ᄃᆞ 같네.”
 ㄷ. “그 양:반이 아:무래두 ‘돌어가실라는ᄃᆞ 같타.”
 “ 슬: 아래 ‘하머 아:무래두 못: 사:실ᄃᆞ 같타구 그래던데 머.”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할’과 같은 관형사형이 기원적으로 명사형이라는 걸 이 현상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오늘 발표 중 어느것보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다.

5.

끝으로 ‘면내다’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더 보기로 한다. ‘면내다’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강릉방언에서 ‘메스낸다’라는 단어를 만나고였다. 그 말을 처음 들은 장면은 이렇다.

(8) 아버지는 “이 집이 (*아들이 소설가로 유명해졌으니) 애:중(나중) 사:람덜이 ‘보러 ‘오구 ‘그랠 틴데(타인데) 본가르(本家를) ‘그양(그냥) 두자!” 그래는 그, 아이. 나 ‘두문 ‘머이 비두 새구, 쥐거 사:방 ‘메스내:고, 연기거 구멍마둥(구멍마다) 나오고, 사:는 기 말:이 아니래서, “우선지 좀 펜하게 사:더 갑시다!” ‘이랬지. ‘그래 혈:구 새루 ‘짚:어요(지었어요).

낯선 단어를 만나면 그것과 대응되는 표준어가 무엇일까를 찾게 되는데 ‘메스내다’는 국어 사전을 며칠을 뒤져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쥐가 메스낸다’라는 것에 생각이 미쳐 혹시 하고 <쥐> 항에 가 보니, 기적적으로 “쥐 면내듯”이 속담으로 올라 있었다. ‘면내다’는 어느 사전이나 비슷한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렇게 풀이되어 있었다.

- (9) 면-내다 [면:--] ㉠ ①쥐나 개미, 게 따위가 구멍을 뚫느라고 보드라운 가루 흙을 파내어 놓다. ②남의 물건을 조금씩 조금씩 훔쳐 축을 내다. ㉡그 집 집사는 주인집 물건을 면내다가 결국에는 들키고 말았다. 【어원: 멧내다(구간)】

그런데 강릉방언의 ‘메스낸다’를 보면 ‘면내다’의 ‘면’이 ‘멧’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여기에 어원 정보도 있어 『救急簡易方』을 찾으니 다음과 같이 ‘멧낸’이 두 번 나와 있었다. (10ㄱ)은 (10ㄴ)의 원문을 諺解한 것이고, (11ㄱ)은 그 원문인 (11ㄴ)의 ‘鼠新坩土’ 아래 붙은 夾註다.

- (10) ㄱ. 쥐 새로 멧낸 흙을 손아히 오좁애 므라 브티라.
 ㄴ. 鼠新坩土 以小兒尿 和傳之.

(11) ㄱ. 쥐 새로 몇넨 흙.

ㄴ. 鼠新坩土.

이제 궁금한 것은 이 ‘몇내다’의 받침 ‘ㅅ’이 언제부터 ‘ㄴ’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마침 柳僖의 『物名攷(卷5, 土1)』에 ‘면넨’이 보였다.

(12) 鼠壤: 齊魯之間謂鼠所出土曰壤. 쥐 면넨 흙.

이렇게 보면 꽤 일찍부터 ‘몇’에 대한 어원의식이 없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몇내다’의 ‘몇’이 달리 떨어져 쓰이는 일이 없고, 늘 ‘몇내다’의 복합어로 쓰이면서 ‘몇’의 받침 ‘ㅅ’이 ‘내다’의 ‘ㄴ’ 앞에서 제 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던 듯하다. 결국 ‘몇’으로 받침 ‘ㅅ’을 살려 둘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마치 ‘돋니다’가 어원의식이 없어지면서 ‘돋니다’로, 다시 ‘다니다’로 된 것처럼 ‘몇내다’도 ‘면내다’로 말하자면 맞춤법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어원의식이라 하였지만 과연 『救急簡易方』 때의 ‘몇내다’의 받침 ‘ㅅ’은 어떤 어원적 근거가 있었을까? 당시의 받침 ‘ㅅ’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분명한 근거도 없이 그렇게 표기하고 그러다가 이내 소리나는 대로 적게 된 것은 아닐까? 누가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걸 반박할 자료를 그동안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제 강릉방언의 ‘메스내다’는 그 ‘몇내다’의 받침 ‘ㅅ’이 어떤 뿌리가 있었음을 일깨워 준다. 벌써 오래 전에 잊고, 또 포기하고 있었던 것을, 깊은 地層에 숨어 있던 土器의 한 파편이 새 역사를 쓰게 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우리로 하여금 새 눈을 뜨게 해 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숙제도 하나 던진다. ‘몇’이 결국은 명사라는 애긴데 그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이 숙제는 강릉방언에서도 풀리지 않았다. ‘메스내다’고 하면 강릉방언에서는 대격조사로 ‘을’이 아니라 ‘으’를 쓰니까 ‘멧을 낸다’로 풀어지는데 ‘멧’을 따로 명사로 쓰는 일도 없었고 ‘멧’이나 ‘메스’를 따로 떼어 무슨 의미를 붙이지도 않았다.

이 숙제가 풀리면, 아니 풀리지 않아도 적어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드러나는데, 지금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면내다’ 및 ‘면’의 풀이들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古語로서가 아니라 현대국어의 일원으로, ‘면내다’를, 더구나 ‘면’을 국어사전에 올리는 것부터 위태롭다는 게 내 생각인데 ‘몇’이 언제 제대로 풀릴 수 있을지, 그것이 밝게 풀리는 날을 보고 싶다.

6.

이런 일을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은 ‘죽살다’도 그렇고 ‘몇내다’도 그렇고 겨우 한 차례 나타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일이다. 내가 근래 발굴된 자료들에 어두워서 더욱 그럴 터인데 口訣 자료처럼 새 자료들이 좀 풍부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강릉방언에는 중세국어 때 ‘빙’을 가졌을 법한 단어들이 몇 있다. ‘또바리’ ‘소갈비’ ‘개비다/괴비다’ 등. 표준어로 각각 ‘파리’ ‘솔가리’ ‘고이다’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또바리→또바리→또와리→또아리→파리’, ‘갈비→갈비→갈위→가리’와 같은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데 아무데에서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또 ‘물꼬’도 “오새는 ‘물꼬이 읍:어서, ‘먼 용곡지두 읍:아. ‘물꼬이 ‘짚어야 있는데”처럼 주격조사로 ‘이’를 취하여 ‘물꼬’의 ‘꼬’가, 그러니까 ‘물스고’의 ‘고’가 ‘코’의 고행 ‘고’가 아닐까, 그래서 주격조사가 ‘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 역시 근거를 찾을 길이 없다.

앞으로 국어사학회 여러분의 활약으로 내 답답함이 하나씩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기대가 크다. 오늘 여러가지로 고맙다는 인사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